

여름장마 호우대비 환경정비 완료

의정부시 송산1동 맨홀정비·도로변 잡초제거



올 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다. 기상예보에 따라 의정부시 송산1동은 22일부터 2일간에 걸쳐 주민자율정비사업 등 관내 자생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맨홀 정비 및 도로변 잡초제거 활동을 실시했다.

22일에는 저지대 및 주거 밀집지역을 시작으로 관내 50여곳에 대해 맨홀 정비활동을 실시했다. 불량 맨홀정비는 물론 맨홀 주위를 가둬 매우고 있던 각종 쓰레기, 모래, 흙 등을 제거하여 장마철 배수로의 충분한 확보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하게 되었다.

25일에는 지난 봄 도로변 화단에 심은 꽃과 도로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여 장마로 인한 환경저해 요인들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한 김은숙(용현동 거주, 여, 42세)씨는 맨홀 안에서 나온 각종 쓰레기와 흙을 치우는데 냄새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상태로 장마가 왔다면 큰 일 날뻔 했더라면 깨끗이 치우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은희 송산1동장은 동에서 '휴일 지역지킴이' 운영 등 자발적인 시민참여에 의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매월 환경정화운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재난관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모두가 솔선 참여하는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서울↔경기도 통합환승할인제 Q&A



서울과 경기지역을 오가는 일반버스(좌석버스 제외)와 수도권 전철의 요금체계가 7월1일부터 서울처럼 한번만 내는 것으로 단일화(본지 제379호12면 보도)됨에 따라 서울에 직장 등 경기도민의 교통요금이 한달에 약 4만원씩 절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오가는 일반버스(좌석버스 제외)와 수도권 전철의 요금체계가 7월1일부터 서울처럼 한번만 내는 것으로 단일화(본지 제379호12면 보도)됨에 따라 서울에 직장 등 경기도민의 교통요금이 한달에 약 4만원씩 절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7월1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에서 시행되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와 관련, 환승 후 버스에 내릴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지 않으면 추가요금이 왜 발생하는지와 또한 거리비례 요금제란 무엇인지 등 도민들의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편집자주)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7월1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에서 시행되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와 관련, 환승 후 버스에 내릴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지 않으면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버스에 탑승할 때 교통카드를 안 찍고 그냥 내렸다면 다음번에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맞습니다. 버스에는 단말기 없이 탑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0.8km), 전철(41.5km) 이동거리가 총 42.3km이므로 요금은 1,600원(900원+추가요금 700원)이다. 이전보다 800원이 절약된다.

버스에 탑승할 때 교통카드를 안 찍고 그냥 내렸다면 다음번에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맞습니다. 버스에는 단말기 없이 탑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0.8km), 전철(41.5km) 이동거리가 총 42.3km이므로 요금은 1,600원(900원+추가요금 700원)이다. 이전보다 800원이 절약된다.

신나는 우리춤 나들이

이미숙무용단 2007 찾아가는 문화활동



1992년 창단 이후 한 국 의 전통춤을 갈고 닦은 이미숙무용단(단장 이미숙)이 25일부터 7월11일까지 4회에 걸쳐 '신나는 우리춤 나들이'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25일 파주보현회에서 개최한 공연은 이곳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의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올 하반기에도 공연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공연은 경기도가 후원해 우리보다 어렵게 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정다운 이웃들을 위해 마련되고 있다.

우리춤의 대표적인 춤사위라 할 수 있는 부채춤과 태평무, 교방일춤, 태평산조, 사랑가, 장고춤 등을 선보이게 이번 공연에는 청소년무용단인 이미숙춤무용단과 주부무용단인 디딤새무용단이 특별출연하고 있다.

이번 공연을 마련한 이미숙 단장은 "이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좀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연을 위해 애써주신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여러분들과 무용단원 여러분의 노고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신나는 우리춤 나들이 공연일정은 다음과 같다.

▶파주 보현회 6월25일 월요일 오후2시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6월27일 수요일 오후1시 ▶동두천 삼성원 7월4일 수요일 오후1시 ▶포천 자혜의 집 7월14일 토요일 오후2시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위촉식

전문가 15명, 장애인복지 증진 기여 당부



학계 교수 등 장애인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은 2년의 임기동안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1만 5천여명의 의정부시 등록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는 6월22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복지국장 등 복지관계 공무원과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 장애인단체 및 시설 대표자,

화 포장, 과수포장 등 농업기술센터내 시설물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어린이의 정서순화 및 관찰 학습을 위해 잔디인형을 직접 만들어 보고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NASA(미항공우주국)에서 발표한 공기정화식물을 하나씩 키워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실습을 하는 아이들의 눈빛에는 장난스러움과 진지함이 묻어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로 직접 만든 잔디인형을 보고 탄성을 지르는 모습에서는 어린이다운 순진함도 엿볼 수 있었다.

센터에서는 이번 교육을 위해 조롱박과 수세미, 호박 등 도심에서 접하기 힘든 식물을 심어 도시생태에 익숙한 아이들의 동심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어린이 농촌사랑 체험교실 호응 좋아

의정부시농업기술센터 잔디인형 제작 프로그램 운영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농촌사랑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차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쌀 중심의 한국형 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한 4개교 4~6학년 학생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으면서도 직접 실습해보는 것이었던 화전과 쌀떡을 만들고 야생

화 포장, 과수포장 등 농업기술센터내 시설물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어린이의 정서순화 및 관찰 학습을 위해 잔디인형을 직접 만들어 보고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NASA(미항공우주국)에서 발표한 공기정화식물을 하나씩 키워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실습을 하는 아이들의 눈빛에는 장난스러움과 진지함이 묻어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로 직접 만든 잔디인형을 보고 탄성을 지르는 모습에서는 어린이다운 순진함도 엿볼 수 있었다.

센터에서는 이번 교육을 위해 조롱박과 수세미, 호박 등 도심에서 접하기 힘든 식물을 심어 도시생태에 익숙한 아이들의 동심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혜의 샘터 책 읽어주기 호응 좋아

의정부시 호원1동 작은도서관 활성화

의정부시 호원1동은 지난 26일 7세 이하의 입학전 아이들 40명과 학부모 30명 등 총 70명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 책 읽어주기 행사를 개최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책 읽어주기 행사는 TV를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독서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주민자치센터내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시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분

기별로 1회씩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호원1동 노현숙 도서관장의 사회로 김영영, 김정순 도서관장이 차례대로 동화낭독을 한후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책 읽어 주는 방법을 교육하는 순서대로 진행 됐다.

김원순 주민자치센터 간사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책임은 통하여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는 이번 행사가 말로 확대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랑담은 배추로 결실을 맺었죠!

의정부시장암동 직원 휴경기 활용 재배

의정부시 시장암동은 6월28일 관내 휴경지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직접 재배한 여름 배추를 나눔의 샘, 아동일보호소, 영아원, 이삭의 집, 선재동자원 등 13개의 불우시설에 1천500여포기의 배추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아동들에게 무봉

약으로 재배한 신선한 배추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며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정암동에서 휴경지를 활용한 이 사업은 시 관내 시설에 김장용 배추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해마다 많은 단체 회원들이 동참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단체 회원 500여명이 여름 배추 경

작을 위해 참여한다 있어 이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눔의 샘 사무국장은 "지난해에도 배추를 지원해 주어 감사를 다했던 어르신들이 많았다고 칭찬을 받았다.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배추를 주어서 고맙고 감사하게 빨리 받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정암동장은 이번 행사는 관내 휴경지를 통해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로 이루어져

기쁘며, 특히 시설 수급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뜻 깊은 활동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북부 경제발전 방향 특강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6월26일 고양시 한국항공대학교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발전 방향에 대하여'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북부기우회 월례회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6월27일 오전 미르웨딩홀에서 개최된 북부기우회 월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년퇴임후에도 시정협조 당부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6월27일 지방공무원정년퇴임식에 참석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미숙의 전통춤 이야기 ⑧ 날뽕복춤

덧배기 가락에 맞추어 추는 복춤

날뽕복춤은 1984년7월25일 대 구시무형문화제 제2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춤이다. 날뽕복춤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정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민속춤으로 예능보유자 김수배씨가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날뽕복춤은 대구의 비산동 일대에서 전승되어온 민속춤으로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 가락에 맞추어 추는 춤이다. 비산농악 등과 그 뿌리를 같이 하지만, 특히 복춤을 추는 복춤은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



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뽕'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로는 비산(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비산동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지금의 날뽕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한 집이 특이하다. 날뽕리 지명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득한 옛날 달천